

“21세기를 향한 현대시의 고전”

올 노벨문학상 수상자 옥따비오 빠스의 작품세계

추원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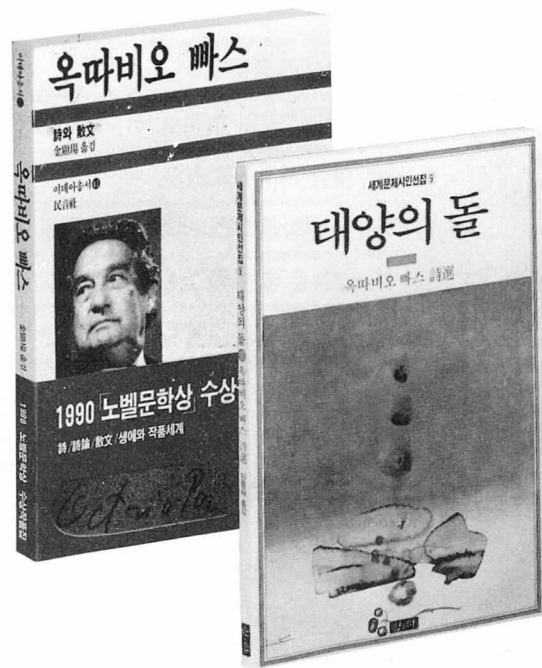
번역가

지난 10월 11일, 올해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로 멕시코의 시인 옥따비오 빠스가 선정되었다. 서반아어권 문학계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았다는 분위기인데, 그의 폭넓은 지성과 독창적인 작품세계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작년의 수상자 까밀로 호세 셀라보다 앞서 수상했어야 하지 않았겠느냐면서 한림원의 그에 대한 평가가 늦게 이루어진 감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역시 작품성에 걸맞게 국내의 서반아어 문학계에서도 그동안 꾸준히 그의 시와 산문을 통해 그를 총체적으로 조망해 보려는 시도가 있어왔던 것을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1986년 민용태교수(고려대)에 의해 번역 출간된 「태양의 돌」과 최근 김현창 교수(서울대)에 의해 때맞춰 번역출간된 「옥따비오 빠스의 시와 산문」이다. 전자의 경우, 원래 시인이기도 한 민교수가 '21세기를 향한 현대시의 고전'이란 제목으로 해설을 덧붙여 의욕적으로 그의 시세계를 국내 최초로 소개하였으며, 후자는 동양사상 및 문화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김교수가 현대 서반아어권 시인 중 동양의 가치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하고 있는 옥따비오 빠스의 철저한 이해를 위해 그의 시뿐만 아니라 시론 및 그의 철학을 담은 에세이를 번역 소개한 노작이다.

지난해엔 소수 서반아문학 전공학자 외에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우리문학계가 셀라의 수상을 지켜보게 했다는 느낌이 들어 무거운 마음이었음에 반해, 올해에는 우리 학계의 깊이 있는 연구가 뒷받침되어 세계문학의 흐름에 대해 정확한 가치평가를 내리고 국내에 미리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국내 서반아문학권의 학문적 연구수준과 노력이 본궤도에 올라 있다는 생각에 가벼운 마음이 되어 두교수의 식을 줄 모르는 연구열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미 지난 85년도에도 노벨상 후보에 오른 바 있었던 옥따비오 빠스는 1914년 3월 31일 멕시코시티에서 출생, 멕시코 국립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면서 틈틈이 시와 수필을 쓰게 되는데, 17세 때인 1931년에 「바란달」(Barandal)이라는 잡지에 시를 발표하여 등단한 뒤에 1938년에는 '작업장'(taller)이라는 시모임을 주도하면서 왕성한 창작활동을 펴게 된다. 그런데 그의 시에 독창적인 색깔을 부여하게 된 계기로서는 1944년 구겐하임재단의 장학금으로 미국에서 공부한 후 1945년 파리



주제 멕시코 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파리에서 초현실주의 시인들 및 실존주의자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하게 된 시기라고 보고 있다.

시인이자 사상가인 그의 시작품들은 후기로 갈수록 서구적인 초현실주의적 색채가 얹어지고 있으나 고대의 중남미 문명과 인도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의 사상과 문학양식과의 접목을 통해 서구의 초현실주의를 독창적 문체와 이미지로 더욱 확대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총 30여편에 이르는 수필들은 사회적 주제를 다루면서도 멕시코의 역사와 문화를 다루는 한편 시의 미학적 인식대상으로 승화시켰다는데서 더욱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옥따비오 빠스의 연구자를 비롯한 독자들은 그에 의해 완성된 새로운 초현실주의시와 그 안에 내재된 동양사상 및 문학양식들을 통해 새로운 시학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의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은 시 「태양의 돌」 발표 이전의 빠스는 인간의 실존과 시간의 문제 등 형이상학적 주제를 다루는데서 언어의 해방과 비논리를 통한 시적 가치를 발견하는 면들을 보여주는 시기로 이동하면서 초현실주의의 국면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러하여 「독수리나 태양이나」와 「태양의 돌」에 이르러 아스떼카문명의 전설을 큰 줄거리로 하여 불꽃튀는 초현실주의적 시작법이 발군의 성취를 거두며 독자를 새로운 시적 긴장감에 빠져들게 한다. 「태양의 돌」은 금성과 태양의 움직임 주기를 새긴 거석이 나타내

고 있는 5백84일의 주기와 똑같은 5백84행으로 상징하고 있는데, 이 장시에서 그는 멕시코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의 아이덴티티 문제를 부각 시키면서 철학적이고 존재론적 질문들, 즉 죽음과 삶, 시간과 영원, 사랑과 현실등의 문제점들을 함축적이고도 독특한 문체로 형상화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형식면에서 실험성을 보여주면서 동양의 영향을 가장 나타내고 있는 것은 1969년 발표된 「지형시」(Topoemas)라 고 하는 시각시이다. 이는地形이라는

뜻의 어간인 'Topos'에 시 'poema'를 합한 합성어로서 언어의 공간적인 창조성과 다양성을 입증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중국의 서예 필법, 일본의 하이쿠, 서구의 말라르메의 「주사위놀이」 등이 이 시의 전거가 되는데, 빠스는 1900년 일본을 방문한 바 있는 호세 환 따블라다, 일본 근대 하이쿠의 거장인 마쓰오 바쇼오(芭蕉: 1644-1694), 아서 웰리(Arthur Waley)의 중국시 번역판에서 직감을 얻어 창작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시들은 동양의 서예와 하이쿠에서처럼 함축적인 의미와 간결성에 내포된 집중성을 지니고 있어 단순히 한국어로 번역하기에는 불가능하며, 엄밀한 의미에서 온전한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 몇개 안되는 서반아어의 뜻까지 알아야 할 것이기에 이미 번역된 시가운데 몇편은 단어 뜻을 밝혀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들 시각시가 서구의 모든 전위문학 운동과 일치하는 점은 바로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하며 독자가 시의 완전한 구성에 참여하게 하는 '호소구조'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 외에도 주역의 팔괘를 원용한 시작법 등이 첨가된 빠스의 동양풍의 시들에 대해서는 민용태 교수의 「서양문학 속의 동양」(고려원, 1987)에서 '옥따비오 빠스와 만물제동(萬物齊同)의 시학'이라는 논문으로 상세히 연구발표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김현창 교수도 이미 1984년에 발간된 「현대세계문학 속의 동양사상」에서 '동양사상과 옥따비오 빠스'를 상세히 분석해놓은 바 있어 빠스에 대한 국내학계의

연구가 상당한 심도를 가지고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두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바에 따르면, 빠스의 공간시가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변화하고 있는 기호를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주역의 기본 정신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독자들은 동서양의 만남을 통한 새로운 시학의 창출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빠스는, 국내에서도 요즘 자주 거론되고 있는 집단창작과 비슷한 여러 시인의 공동작업을 통한 連歌式 연작시법을 보여준다. 연가는 5-7-5의 長句와 7-7의 短句와의 조화를 기본으로 하는 일본시의 한 형태이고, 연작시는 빠스의 경우 여러 시인이 이어받아 쓰는 시짓기 형식을 취하는 데, 1971년에 출판한 작품은 프랑스의 자끄 루보(Jaques Roubaud), 이태리의 에도아르도 상기네띠(Edoardo Sanguineti), 영국의 찰스 톰린슨(Charles Tomlinson)과 1969년 파리에서 5일간을 함께 지내면서 즉흥적으로 각자의 언어로 공동창작한 것이다. 이 경우, 시는 여러 시인의 예술관과 개성이 만나는 광장이 되는데 이는 다채로운 정신들의 대화를 통한 새로운 시학의 돌출을 보여주는 초현실주의적 수법에 뿌리가 닿아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때, 옥따비오 빠스의 문학은 동양에서 단순히 서구 지식인의 딜레마정신을 충족시킬 재료를 구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될 21세기의 조화로운 시대정신을 찾아나선 독창적이고도 선구자적인 노력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옥따비오 빠스의 문학세계는 노벨상과는 무관하게 민을 만환 성실성을 지닌 채 꾸준히 번역, 출판되어 왔고 앞으로도 더욱 빈번하게 소개될 것이라 전망할 수 있다. 그러나 서반아어권 문학연구 및 번역가들에게 조금 더 요구하고 싶은 게 있다면 완역판의 소개만이 빠스에 대해 국내에 정확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권 한권씩 번역을 완결해서 시간이 흐르면 전집화시켜 나간다면 국내의 문학적 저력을 키우는데도 상당한 보탬이 되리라 생각한다. 애석하게도 이미 번역된 「태양의 돌」과 「옥따비오 빠스의 시와 산문」은 발췌번역이었다. 두 작품의 완역은 국내시단에 신선하고 힘찬 지향점을 제시해 줄 수 있으리라 믿기에 굳이 어 완역판이 나올 것을 기대해 본다.